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발행편집인 공영익
수간 아석우
편집장 김중식
인쇄인 김준배

서울캠퍼스(우: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449-701)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서천리1
☎(741)5701(교환:2056-2860)
지품(0331)280-2056-2860
FAX(0331)281-6378

제1048호 〈주간〉 1994년 5월 30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1964. 1. 등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필수 줄이고 선택 늘린다"

교양과정 연구위 단대별 특성 강화한 개편안 발표

우리학교 교양과정이 전면 개편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양과정개편은 현행 교양과정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만을 다뤄 교육의 질저저하를 초래한다는 단점을 보완하여 보다 전문적인 교육내용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하고 또 개설과목 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늘린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양 캠퍼스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양과정 연구위원회에서는 종전 사회·인문·자연 제열로 분류하던 것을 8개 '학문관실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 교양필수과목이나 기타 이수규정은 각 단과대학의 자율에 맡겨 단대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그 과목수는 2~3과목으로 줄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에 대한 선택범위를 확대하였다. 교양과목 이수 학점의 합계는 종전과는 달리 모든 과에 일률적으로 42학점을 이수토록 하였다. 그리고 교양과목의 수업은 1~2학년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한편 8개 '학문관심영역'은 국어와 작문, 외국어와 국제문화, 철학과 문학, 역사와 문화, 인간과 사회, 예술과 건강생활, 자연의 이해와 정보처리, 기술과학이다.

교양과정 연구위원회에서는 현재 각 영역별 개설과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총 1백여 과목정도가 개설될 예정이다.

〈대화발·영역별 교양과목 최저이수학점 배분표〉

영역 \ 단대	문과대 인문계	문과대 자연계	경영대	사회 영문	사회 미술	사회 가정	사회 신방	의대	한의대	치대 간호	치대 보건계	약대	법대	체육 체육	체육 무용	간호	사회대	사회대	사회대	공과대	전자계열	전자계열	전자계열	체육대
국어와 작문	6	3	6	3	3	6	3	3	3	3	3	3	3	6	6	6	3	3	3	3	3	6	6	6
외국어와 국제문화	9	6	6	6	9	6	6	6	6	6	6	6	6	9	6	6	9	6	6	6	6	6	6	6
철학과 문학	6	3	6	6	6	6	3	3	3	6	3	3	3	3	3	3	6	6	3	3	6	6	3	3
역사와 문화	3	3	3	3	6	3	3	3	3	3	3	3	3	3	3	3	3	6	3	3	3	3	3	3
인간과 사회	3	3	3	9	6	3	9	3	3	6	6	3	6	3	3	3	9	3	3	3	3	3	3	3
예술과 건강생활	6	3	3	6	3	9	6	9	3	3	3	3	3	9	9	9	6	3	3	3	3	9	9	9
자연의 이해와 정보처리	3	3	3	3	3	3	3	3	6	6	3	6	6	3	3	3	3	3	3	3	3	3	3	3
기술과학		12							6	9	6	9	9	3				12	12	9		3		
교양필수	5	9	6	6	6	6	6	6	9	6	6	9	9	6	6	6	6	6	9	9	9	6	6	6
교양선택	30	27	30	30	30	30	30	30	27	30	30	27	27	30	30	30	30	30	27	27	27	30	30	30
전공교양	5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6
교양과목학점 합계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42

◇…지난 27일 본격적인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원캠퍼스의 산학협력기술원이 개원하였다. 〈고희민 記者〉

면접, 적성 취업 특강

취업특강이 오는 9일 오후 2시 크라운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취업정보실은 최근 기업들이 사원을 뽑을 때 면접시험을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 검사를 중시하는 추세에 대응해 이번 특강에서는 면접과 인성, 적성 검사에 응하는 요령에 대해 상세히 강의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 작성 요령도 설명하며 강사는 매일경제신문 비지니스 센터의 장재성 부장이다.

위암 앓는 학우 돕기 공연

한달 3백여만원 치료비 마련 위해

위암을 앓고 있는 주선(생물·90)양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공연이 오늘 오후 6시 크라운관에서 열린다.

'손 맞잡고 함께 할 선의 푸르름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선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선사랑, 대표 엄재연 생물학과 졸업 90학번)에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90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었던 송규뭉씨가 사회를 맡고 조국과정훈, 강장식, 윤향아, 김영남, 허정숙, 이기형씨 등이 출연한다.

작년 총학생회 농민연대사업부장을 역임했던 주선양은 '항상 농촌의 현실을 고민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던'모범적인 친구였다고 주위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은다.

선배 한진희(미교·4)양은 "심한 병색인데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아 병든만 잤던 사람들이 오히려 힘을 얻고 돌아온다"고 이야기 한다. 주선양은 현재 한달에 1주일 정도를 병원에 입원해서 항암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에는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

생물학과 학생들과 작년 총학생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사랑'은 현재 1백3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해 있는데 이번 공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선사랑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다. 서점 '지평'은 하루서점을 열어 그날 순수익을 전부 선사랑에 기증했고 '솜아 솜아 푸르른 솜아'에서는 모금함을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모금된 돈을 기증하기도 했다.

사 고

전국 고교 문예 현상공모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고교생들의 문학을 통한 이상의 구현과 의지 표출의 장을 마련하고 다가올 미래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문예현상공모를 실시하오니 발탁하고 순수한 고교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참가자격 : 전국 남녀 고등학교 재학생
2. 시행방법 : 1차—작품 공모 후 본선 진출 작품 선정 후 개별 통고
   2차—강희대에서 공개 백일장 개최
   이 두가지를 종합하여 수상자 결정
3. 공모일정
   1) 1차 작품접수 : 1994년 7월31일 오후5시까지 작품이 도착할것
   1차 작품심사 : 1994년 8월초, 권위 있는 심사위원(추후발표)
   심사 통과자 개별통보 및 백일장 안내문 발송 : 1994년 8월10일
   2) 2차시험 : 1994년 9월3일(土) 오전10시(장소 추후 공고)
   3) 최종심사 및 시상식 : 1994년 9월29일
4. 시 상
   대상 : 1명, 상장 및 부상, 상금30만원
   당선 : 2명(시, 소설 각 1명), 상장 및 부상, 상금 각10만원
   가작 : 2명, 상장 및 부상
   장려 : 2명, 상장 및 부상
   특전 :
   1) 대상, 당선 입상자로서 수학능력시험 120점 이상인 자가 본교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한 경우, 특별선형 대상자가 될 수 있음.
   2)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대상 수상자는 2년간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당선 수상자는 1년간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5. 공모방법
   1차작품 공모부문 : 시(5편이상), 소설, 원고지 50매 이상
   1차작품 공모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내방 접수 단, 우편접수는 봉투 우측상단에 '고교문예현상공모'라고 붉은 잉크로 기재할 것, 연락처 및 전화번호를 필히 기재할것
   접수처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편번호. 130-701)
   ☎961-0223

주최 : 경희대학교
주관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주보사.

계절학기제 대폭 개정

조기 졸업, 복수 전공에 유리할 듯

이번 여름방학부터 계절학기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교무처에 따르면 전체교과목을 대상으로 개편되는 계절학기제는 전체학생에게 수강기회가 주어지며 4년간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이 12학점에서 36학점으로 증가되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계절학기제는 공통교양, 계열교양, 전공기초과목에 한하여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교양과목 재수강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에 계절교과목을 전교과목으로하고 재학생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그 폭을 넓힐 계획이다. 또 계절학기에서 4년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을 12학점으로 제한했던 학칙을 개정하여 매 계절학기 수업당 6학점으로, 4년동안 최고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이수자는 물론 재학생들의 조기졸업과 복수전공, 부전공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계절학기 수업은 수강희망자가 10명이상인 교과목에 한해 개설되며 계절학교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서에 희망과목을 기록하여 학적과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계절학교 강좌는 1, 2학기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되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수한 성적은 계절학기의 성적으로 별도 처리하게 된다.

주사 전자현미경 설치

수원캠퍼스 연구·실험지원센터는 지난 23일 주사전자현미경과 미량 엑스레이 분석장치를 공대 전자현미경실에 설치하였다.

이 현미경은 약 30만배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금속, 재료, 고분자, 생화학 등의 분야에 이용된다.

이번호가 1학기 종간호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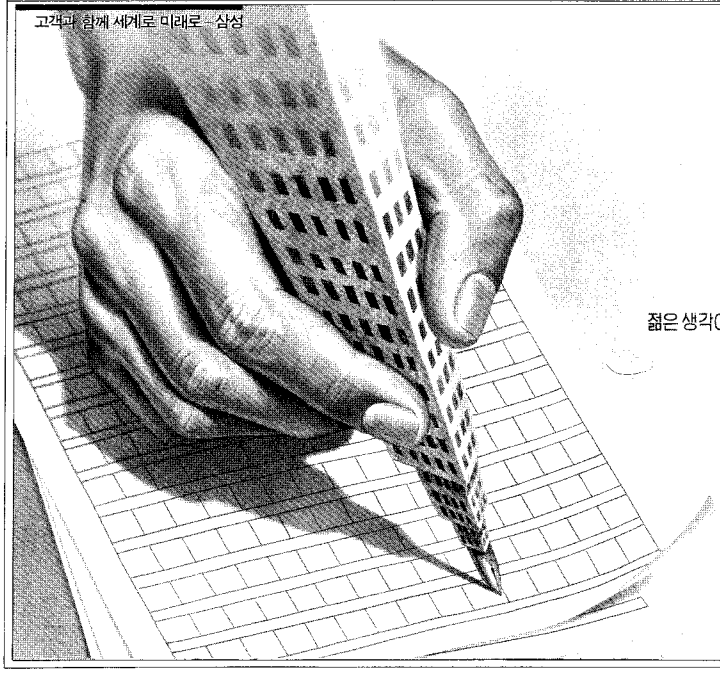
한지붕 두가족(?)

▼지성인들의 공간이라 불리우는 대학에서 간간이 불미스러운 폭력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84년 10월 23일 '마스터플랜 공개'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중이던 이공대생 4백여명과 체육과 학대생들간에 집단충돌사태가 발생했던 것만 해도 그렇다. 이 사건은 체육과학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가운데 체과대 학생장이 한 학우의 가슴을 밀친데서부터 시작하여 부상자 20여명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번졌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 사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학생들간의 충격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수원캠퍼스 대동제에서도 양단대의 미묘한 감정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난 25일 대동제 마지막날 밤, 체과대생들의 다분히 고의성 짙은 시비성 발언 그리고 여기에 맞대응한 공대생들과의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물론 양측은 술을 어느정도 마신 상태였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싸움이 단순한 주먹다짐이 아니라 사용여부에 따라서는 흉기로 변할수도 있는 각목이나 야구방망이 등의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집단적인 폭력이라는 점이다.

▼물론 모든 공대생과 체과대생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공·체과대생들로 인해 학내에서 '양단대가 서로 앙숙관계'라는 등식이 공공연히 성립되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싸움은 각계는 그들이 속한 단대를 욕되게 하고 더 나아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타단대생과 다르다는 배타성에서 탈피해 서로 같은 학우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배종근 記者〉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 기술력 향상과 저변확대를 통해
국내 건설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3회 건설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응/모/요/강

1. 참가대상
   ●각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2. 응모기간
   ●1994.8.29~9.6
3. 응모주제(7가지 주제중 택일)
   ●사회간접자본 확충 관련사항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대책관련사항
   ●국내 건설기술 발전 관련사항
   ●건설업체 육성 관련사항
   ●지사제 운영과 건설업 관련사항
   ●도시교통문제 해결방안 관련사항
   ●국내건설업의 해외진출 전략 관련사항
4. 응모요령
   ●A4용지 30~40매 내외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원고용지 및 양식은 본사 홈페이지 표시된 워드프로세서 사용불가)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전
   ●최우수상 1명 :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우 수 상 2명 :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장 려 상 7명 :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상 이상 입상자 우선 취업기회부여 (3학년)
6. 작품심사
   ●1차 : 삼성건설 자체심사
   ●2차 :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분야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발표
   ●1994.10.10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상
   ●1994.10.18 삼성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현대타워빌딩 삼성건설 기획실 강남사서함 1430. 우편접수 가능
10. 기타
   ●수상을 위시 본 현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함 15만원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누군 신문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국내외 저작권 논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원저를 밝혀야 함.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실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 527-1741~2

SAMSUNG 삼성건설